

성지에서 온 서신 (108)

9753546 71/21 st. Heil Ha Avir Pisgat Ze'ev Jerusalem Israel,

Tel: 972-052-627-1083

E-Mail: lyuboph@hotmail.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rassvet>

주 안에서 문안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저희들을 사랑하는 후원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아울러 사랑을 전합니다.

성지에서 보내는 두 번째 서신입니다.

가족 소식

참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8월 중순 이곳으로 왔습니다. 9월 중순 아들 한길이가 추석 휴가를 이용해 방문했고 함께 성지 이곳 저곳을 다녔습니다. 2천년 전 예수님의 자취를 밟으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9월 말 러시아 모스크바로 되돌아가 이스라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입국했습니다. 비로소 정착했습니다.



(사진1: 다윗 동네 입구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 구소련 출신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거리나 가게에서 노어가 통할 정도입니다. 월세가 비싸지만 향후 사역을 위해 거주하기로 정했습니다.

10월 말부터 히브리 대학에서 현대 히브리어 수업을 받을 것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의 어원과 문법은 모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를 배움으로 구약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2년은 배워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때늦게 하는 히브리어 공부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다른 한편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현지 교회 소식

8월말 '메시아닉 주'(개신교 유대인 신자)인 영국계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거리 전도에 잠깐 동참했습니다. 다양한 종족들을 대상한 전도 방식은 그냥 신약 성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영어, 히브리어, 아랍어와 노어로 전도를 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거리 전도는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정통 유대교가 강한 도시에선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위한 목회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한국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진2: 거리 전도)

안식일 저녁 그가 시무하는 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구소련계 유대인들입니다. 영어 설교가 노어로 통역되었습니다. 언어 문제로 목회자와 신자 사이 원활한 소통이 쉽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 적대적 나라들처럼 다른 민족을 대상한 선교 활동 자체는 이곳에서 불법입니다. 한 동안 저희들은 언어와 문화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서두를수록 조기 철수 위험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적응을 잘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소식

1. 이곳의 도로 표지는 히브리어, 아랍어와 영어로 안내합니다. 이들이 이곳의 공용어입니다. 물론 노어로 된 여행 안내 책자도 발견됩니다. 이들 4개 국어가 거의 공식적 언어입니다.



(사진3: 골고다 언덕으로 추정되는 곳)

2. 이스라엘 도시의 거주자들 중 약 25-30%가 구소련 출신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많이 이주한다고 합니다.

텔 아비브, 하이파, 아카, 브엘 세바와 아라드 등등에 구소련 출신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이들을 방문하며 그곳 목회자들과 만나 향후 사역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귀국을 돕는 '알리야'란 단체도 기독교 유대인들의 이주를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주한 '메시아닉 주' 즉 개신교 유대인 신자들은 이곳에서 어렵게

합니다. 이들을 위해 긍휼 사업을 하는 기독교 계통의 NGO 단체들이 눈에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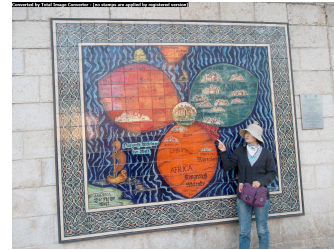
3. 유대인들은 과거부터 기독교 측으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팔아먹은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적대적인 이유입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최근 유대인 개신교 신학자들은 당시 일반 대중이 아닌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유대인 전체를 핍박함은 모순이라고 이들은 지적합니다. 이젠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4. 지금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반유대주의 때문에 유럽은 물론 미국으로부터 유능한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의 역사적 성취입니다.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여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눠 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을 위하여 앗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사11:11-16절)

5. 이곳에 자주 테러가 발생합니다. 거리에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칼을 휘두르거나 자폭 테러를 합니다.



(사진4: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

동양인을 대상하진 않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사람 많은 곳들과 대중 교통 수단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안전을 위해 중고차라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평안을 빕니다!

2016년 10월 2일

장창수/임월조 드림

***기도 제목**

1. 러시아의 4교회들 - 라스베트, 까멘스까야, 크라스노옴스까야, 터넬 - 을 위해...
2. 이스라엘의 문화와 언어에 잘 적응하도록...
3. 새로운 환경에서 영육간의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4. 중고 자동차의 구입을 위해...

***선교 편지를 절대로 공개하지 마십시오!**